



요즘 몸
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전례

없이 뜨겁다. 인류학·

철학·사회학·의학·여성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몸을 새롭게 바라본 책들의 출판도 활발해졌다. 포스트모더니즘 등장 이후 인간 주체에 대한 자각이 높아지면서 오랫동안 합리적 이성애에 밀려 소외됐던 몸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사유의 변방에 버려졌던 육체를 담론의 중심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총체적 실체로서의 몸 조명해

이성중심주의에 뿌리를 둔 서양의 모더니즘에서 인간의 몸은 철학적 담론에서 배제돼왔다. 그러나 현대 학계의 지적 풍토는 이른바 '포스트 페러다임'을 생산해냈다. 정화열 교수가 쓴 《몸의 정치》(박현모, 민음사)는 이런 포스트 페러다임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몸 또는 살은 사회적이고 자연적이며 인공적인 세계에 있어서 우리 존재의 참된 '시원적 형태'"라고 강조한다. 이로써 지은이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모더니즘의 엄숙주의와 결별을 선언한다. 특히, 슈라크의 '횡단적 연계성'의 개념 분석을 통해 문화적 경계와 규율적 한계를 가로지르는 동서양 철학의 접점을 찾고 있어 눈길을 끈다.

《몸의 정치》가 현상학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입장에서 동서양의 몸 철학을 집대성했다면, 크리스 쉘링의 《몸의 사회학》(임인숙, 나남출판)은 사회학에서 몸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고찰하고, 몸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관점들을 소개했다. 지은이는 "몸의 사회적

주체에 대한 자각 일깨우는 몸 담론서들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적 성찰 담겨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 이후 모더니즘의 합리주의 이성애 반기를 든 몸 담론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몸을 정신과 육체로 이뤄진 총체적 실체로 파악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몸을 새롭게 바라본 담론서의 출판도 활발해졌다. 페미니즘 입장에서 여성성의 복권을 꾀한 몸 담론서들도 줄을 잇고 있다.

에 초점을 맞춘 학자들은 몸의 생물적 측면을, 정신에 초점을 맞춘 학자들은 인간 존재의 육체성을 간과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몸을 정신과 육체로 이뤄진 총체적 실체로 인식해야 풍성한 몸의 사회학을 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몸에 대한 생물학적 자각은 자연스레 삶과 죽음의 문제로 나아간다. 아날학파의 거장 자크 르 고프를 비롯해 프랑스 역사학자 22명이 지은 《고통받는 몸의 역사》(장석훈, 지호)는 각종 질병을 통해 인간의 삶을 조명했다. 지은이들은 인간의 역사에서 굵직한 획을 그었던 질병들을 이야기 하면서 그 이면에 놓인 또 다른 고통을 들여다본다. '고통받는 몸의 역사'는 미신과 오해, 과학과 종교의 미묘한 갈등 속에서 편견으로 고통받는 '인간'의 역사라는 게 지은이들의 생각이다.

페미니즘 입장에서 여성성의 실체 파헤쳐

포스트모더니즘이 소외됐던 '비주류'의 '복권'을 꾀하면서 페미니즘은 새롭게 관심의 중심에 섰다.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케티 콘보이 외, 고경하, 한울)는 수잔 보르도의 〈몸과 여성성의 재생산〉을 비롯해 모두 14편의 페미니즘 논의를 모았다. 지은이들은 여성의 몸이 사회적 구성물이란 전제 아래 여성의 몸이 어떻게 정의되고 상품화됐는지 분석했다.

여덟명의 철학 교수들이 지은이로 나선 《여성

현실사)는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학문적·철학적 대응방안을 모았다. 지은이들은 원시 신화 속에 나타난 여성의 상징, 유가철학의 '몸 은유' 방식을 통해 여성을 이해하는 등 동양 문화의 특수성 속에서 가부장적 가치관에 의해 억압받아온 여성성의 실체를 파헤쳤다.

한서설아의 《다이어트 성정치》(책세상)는 다 이어트로 통칭되는 '몸매 가꾸기'에 숨어 있는 정치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분석했다. 지은이는 "여성들이 외모 때문에 겪는 고통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자아 존중감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권력에 끊임없이 판지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며 여성성의 복권을 위한 좀더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미디어·섹슈얼리티·폭력'을 주제로 단 《몸의 확장》(김규원, 가산출판사)은 우리 사회에서 몸이 어떻게 구조화·고착화됐는지 광고와 영화 등 구체적 실례를 들어 몸의 논리를 확장시켰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행하는 몸의 확장이 곧 여성의 문제이며, 여성문제의 배후에는 사회적 합의로서 남성중심 문화가 권력화하고 있다"는 게 지은이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이념의 도구로서의 몸이 아닌, 몸 자체가로서의 '몸'에 주목한 이혁발의 《누가 그림 속의 즐거움을 훔쳤을까 - 화가 이혁발의 몸 에세이》(스테디북), 철학·의학·미학 등 여러 분야의 국내 학자들의 몸 담론을 모은 《몸 또는 욕망의 사다리》(이거룡 외, 한길사) 등이 있다.

- 박옥순 기자